

제19대 국회의원선거 속초-고성-양양선거구 후보자 등록 현황 및 정보

후보자	생년월일	주소	직업	학력	경력	재산신고액 (천원)	병역신고 (본인)	납부액 (천원)	체납액 (천원)	현재납액 (천원)	전과유무 (건수)
새누리당 정문헌(鄭文憲)	1966. 5. 04 (45세)	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59번길	정당인	·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졸업	· (전)제17대 국회의원 · (전)청와대 통일비서관	4,101,380	군복무를 마친사람	512,421	5,121	0	없음
민주통합당 송훈석(宋勳錫)	1950. 10. 08 (61세)	강원도 속초시 청대로 204번길	국회의원	·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졸업	· (현)국회의원 · (전)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장	2,786,333	군복무를 마친사람	714,679	0	0	없음
무소속 강주덕(康柱德)	1953. 07. 22 (58세)	강원도 속초시 우령3길	건설업	· 국방대학원 안전보장학 졸업(국방대학교 국방관리학 졸업)	· (전)민주당강원도당노동위원장 · (전)한국가스공사 강원본부장	411,710	군복무를 마친사람	70,361	0	0	없음
무소속 손문영(孫文榮)	1952. 01. 17 (60세)	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	무직	· 동국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	· (전)현대건설 전무 · (전)동국대 겸임교수	1,061,260	군복무를 마친사람	255,966	510	0	없음
무소속 황정기(黃正起)	1963. 07. 30 (48세)	강원도 속초시 온정로 1길	무직	·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졸업	· (전)제18대 국회의원선거후보자 · (전)한국산업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	601,364	군복무를 마친사람	41,440	0	0	없음

주민자치위원회 연합회 회의



고성군 주민자치위원회 연합회는 지난 21일 오전 11시 군청 상황실에서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회의를 열고, 주민자치센터 교류 활성화 및 동아리 활동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.

위기가구 사례관리 회의



고성군은 지난 22일 오후 2시 고성청소년수련관 2층에서 공무원 및 민간시설 관계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례관리 회의를 열고,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33명의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체계적인 보호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.

파트타임 근무할 분 구함

“가족처럼 편하게 일할 분”

- 업체: 화진포 막국수
- 위치: 거진읍 화포리
- 분야: 오후 5시~9시까지 주방·쌈방
- 인원: 여 1명
- 급여: 월 60만원(월 2회 휴무)
- 문의: 682-4487, 010-4653-9428

# “금강산관광 조기재개 방안 찾아야”

강원도의회 ‘금강산관광 조기재개 촉구’ 건의안 의결  
박효동 도의원 대표발의...청와대 등 관련 부처 전달



일내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”고 건의했다.  
한편 지난 2003년 시작된 금강산관광은 2008년 7월 11일 남측 관광객 피살사건이 발생하면서 현재까지 중단되고 있으며, 강원도의회는 이번 건의에 앞서 강원도가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금강산 관광 재개를 지속 건의했었다.  
최광호 기자

고성 출신 박효동 강원도의원(새누리당, 사진)이 대표 발의한 ‘금강산 관광 조기재개 촉구’ 건의안이 지난 23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청와대와 통일부, 행안부, 국회 등 관련 부처에 전달됐다.  
박효동 의원은 건의안에서 “지난 2008년 7월 이후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고성군은 지금까지 관광수입 감소, 지방세 체납 등 경제적 손실이 무려 월

평균 29억원이며, 지금까지 총 1,200억여원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”며 “이제 소모적 논쟁보다는 재개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”고 했다.  
박의원은 “평화는 곧 돈이고 지역경제를 일으키는 저변임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남북간 평화와 화해의 상징적 사업이었던 금강산 관광재개를 위한 방안을 하루 속히 찾아야 한다”며 “정부는 남북 당국자간의 대화를 통해 빠른 시

# “날려버린 4년...잘사는 지역 만들겠다”

새누리당 정문헌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



새누리당 정문헌 후보는 지난 17일 오후 2시 속초시 조양동에 마련된 선거사무소에서 후원회장인 홍사덕 의원과 당원 및 지지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열고, 본격적인 총선 행보에 돌입했다.  
이날 개소식에서 정문헌 후보는 “지난 4년간은 우리에게 날려버린 4년이었다”며 “당선을 위해 민주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, 다시 민주당으로, 씨도 없고, 근본도 없는 이 정치 때문에 우리



지난 17일 열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새누리당 정문헌 후보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.

고향이 낙후되고 침체되었다”고 했다.  
정후보는 또 “그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며, 스마트한 정책이 필요하다”며 “정문헌이 똑바로 하겠다. 제대로 하겠다. 스마트한 속-고-양, 잘 사는 속-고-양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”라고 했다.

정후보는 “우리 속담에 ‘등에 업은 아이 몇 년 찾는다’는 말이 있는데, 저는 여러분이 8년전부터 등에 업은 아이”라며 “고향발전 멀리서 찾지 말고 정문헌과 함께 해 4.11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”고 했다.  
최광호 기자